



‘손 마스크’

박영대기자 sannae@donga.com

사상 최악의 황사가 전국을 강타한 2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시민들이 눈도 겨우 뜬 모습으로 차를 기다리고 있다.

“숨쉬기 너무 힘들어요”

황사 최악... 호흡기-눈병 환자 급증 입막고 종종걸음... 항공기 결항 속출

사상 최악의 황사가 몰아닥친 2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치 누런 안개에 잠긴 듯했으며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수건으로 입을 막고 종종걸음을 걷는 등 먼지로 큰 고통을 겪었다.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퇴근을 앞둔 것으로 보이며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음식점의 손님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황사 특대전화는 황사가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과 때문에 통화 중 끊기거나 끊어지기도 심했으며 병원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큰 혼잡을 빚었다. 또 지방에서는 기상이 악화되면서 여수, 울산, 목포, 부산, 속초공항 등 항공항과 김포공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국내선 항공편이 결항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황사 피해=90년대 이후 황사 피해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51년부터 90년까지 30년간 서울에서 황사 관측일은 평균 2.6일이었지만 99년 6일, 2000년 10일, 2001

년 27일로 늘었다.

황사가 빈발하는 것은 황사 발원지인 중국 내륙지역의 삼림 파괴와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이 지역에 고온건조한 날씨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압골이 발생하면 미세한 황사 입자가 상승기류를 타고 공중에 떠 있다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 일본 등으로 날아오게 된다.

황사가 한번 발생하면 동아시아 상공에는 약 100만t의 먼지가 떠오른다. 이 중 한반도에 쌓이는 먼지는 15t 짜리 덩크 트럭 4000~5000대 분량인 4만6000~8만6000t으로 추정된다.

황사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황사에는 양이온성 토양금속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수나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식물과 해양 플랑크톤에 유기염류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후유증=이날 전국의 내과 이비인후과에는 기침 알레르기 눈병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몰려들어 북

새통을 이뤘다.

서울 마포구 중동 연세이비인후과 김태형 원장은 “평소보다 환자가 50% 정도 늘었다”며 “아이들은 주로 기침 알레르기비염 천식을 앓고 있으며 성인들은 목부위의 통증을 동반하는 후두염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 정안과병원 최기용 원장은 “눈이 가렵고 눈곱이 끼는 결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40여명으로 평소보다 2.5배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약국에서는 마스크 구강청정제 안약 등의 판매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

▽주의 사항=황사가 위험한 것은 황사에 포함된 미세먼지 때문이다. 2.5μm 이하의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 만성 기관지염 증상을 악화시키고 노인과 영아에게 폐렴 등을 일으킨다. 노약자에게는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노약자 어린이 및 기관지염 천식환자들은 옥외 활동을 삼가고 건강한 사람들도 격렬한 옥외 활동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정성희기자 scchung@donga.com

이진한기자·외사 likeday@donga.com

中 황사피해 1억3000만명

20여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중국 전역을 뒤덮고 있다.

18일경부터 중국 서북지역의 사막 등에서 일기 시작한 황사는 수도 베이징(北京)을 비롯해 북부와 서부의 120여개 현을 세찬 바람과 함께 강타해 1억3000만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중국 중앙기상국이 20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베이징 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70여편의 이착륙이 지연됐으며 고속도로에서도 최고 속도가 100km에서 80km로 낮춰졌다. 공항당국은 황사가 조금 더 악화될 경우 항공기들의 결항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상국은 황사가 22일경부터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 lihzip@donga.com

정부, 중사막조림 지원키로

사상 최악의 황사현상이 우리나라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사막지역의 조림을 지원한다. 21일 산림청 임업연구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따르면 해마다 봄이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악명을 떨치고 있는 황사를 막기 위해 이달 말 중국 정부와 중국 사막화 방지사업을 위한 각서를 교환한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